

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

<< 발명과 특허란 무엇인가?? >>

I. 발명과 특허란 무엇인가?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 12. 10.>

1. "발명"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(高度)한 것을 말한다.
2. "특허발명"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.

1. 발명이란?**(1) 발명의 의의**

- 발명이란,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다.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, 용도의 변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요소들을 변화시켜 유용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것이면 모두 발명이다.
-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'자연법칙의 이용성', '창작성', '창작의 고도성' 등을 가진 기술적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. 즉,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.

(2) 발견과 비교

- 발견의 사전적 의미 : 미처 찾아내지 못하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,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
- 발견이 모두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명의 선행단계인 발견을 거쳐 발명으로 완성된다.
-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발명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, 예외적으로 용도를 발견하는 발명은 용도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.

<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>

평범한 세일즈맨이었던 '킹 질레트'는 면도를 하다 면도칼에 얼굴을 베인 후 얼굴이 베이지 않는 안전면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안전면도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자신의 머리를 다듬던 이발사가 빗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가위

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
 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. 즉, 빗을 사용하지 않고 가위를 머리카락에 직접 대고 자르면 다칠 염려가 있으나, 빗을 사용하면 빗이 막아주어 다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. 칼날 옆에 안전대를 붙이고 쓰다가 칼날이 무디어지면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모양의 질레트 안전면도기는 이렇게 이발관의 아이디어로 태어났다.

(3) 일반적 발명 기법

- 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지만, 대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품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1) 더하기 기법

- 기존의 물건에 물건을 더하거나 방법을 더하여,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
- 예. 양날면도기처럼 똑같은 물건을 더하는 A+A 방법과 지우개 달린 연필처럼 서로 다른 물건끼리 결합시키는 A+B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

2) 용도 바꾸기 기법

-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기법
- 전등을 살균 램프로 활용하는 방법, 천막천으로 만든 청바지 등이 용도바꾸기 기법으로 만든 발명품

3) 모방하기 기법

- 타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발명기법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는 기법 중 하나
-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기법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점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. 이때 주의할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된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. 따라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권의 존재여부 및 권리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 (예. 인라인스케이트)

4) 그 외

- 반대로하기(발가락양말), 크기바꾸기(3단접이양산), 편리하게하기(리모컨)

(4) 발명과 기술의 비교

-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므로 구체화의 정도에서 기술에 못 미친다.

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

- 발명과 기술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인 점에서 일치한다. 그러나 기술은 산업상 실제로 그대로 이용가능한 구체적인 수단이고, 발명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단인 점에서 구별된다.

(5) 발명과 발견 비교

- '만유인력의 법칙 발견'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발명과 다르다.
- 자유낙하의 법칙, 만유인력의 법칙 등의 자연법칙 자체의 발견에는 자연법칙의 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.

2.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

(1)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

- 발명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유의해야 한다.
 - 1)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 - 2)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.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.

(2) 구성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기법

- 1) 구성요소의 부가 : $A+B+C \rightarrow A+B+C+D$
 - 기존 제품에 한가지 이상의 기능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유익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. (예. 지우개 달린 연필, 라디오 겸용 녹음기)
 - 구성요소의 부가에 의한 발명은 만약 부가된 구조가 이미 이전부터 있는 기술이고 기능적 부가에 의한 특별한 효과 및 새로운 기능 추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기술의 단순 결합이라 하여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
- 2) 구성요소의 삭제 : $A+B+C+D \rightarrow A+B+C$
 - 구성요소의 구조적 제거를 하는 발명이다.
 - 기능은 유지하면서 구성요소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.

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

- 구성요소의 기능성 삭제에 의한 발명품의 경우에는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므로써 제품원가를 낮추는 장점이 있다. 이때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특정 구조를 제거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.
- 구성요소의 삭제에 의한 발명 창출은 단지 구조를 삭제하여 비용절감 및 소형화 등과 같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효과만 있어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

3) 구성요소의 치환 : $A+B+C+D \rightarrow A+B+C+D$

- 구성요소의 부가나 삭제 외에, 발명을 이루는 단위요소들 중 일부를 다른 제품 또는 기술분야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요소로 대체 또는 치환하는 방법이다.
- 예. LCD TV는 자체 발광원이 없어서 다른 백라이트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LED로 바꿔서 더 밝게 만든 경우이다.

< 발명 사례 >

길라 C&I의 김동환 사장은 교통경찰관이 야간에 목과 어깨 사이에 전등을 끼워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본 후, 불빛이 없는 곳에서도 글씨를 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. 이에 볼펜 끝 부분에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밤에도 불을 밝혀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 펜을 개발하였다.

3.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될까?

Q. "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"이라고 한다. 우리 민족 최대의 발명 '한글'이라 할 수 있다. 조선시대에 특허제도가 있었다면, '훈민정음'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었을까?

(1) 특허로 될 수 있는 발명

- 특허로 될 수 있는 발명이란 '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'을 의미한다.

1) 발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'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'

- 자연법칙 자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.

===== 【 기술보호와 법 】 =====

2) 기술적 사상

- 마르크스의 유물론, 아담스미스의 경제이론 등은 인문학적 사상이며,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될 수 없다.

3) 창작

- 창작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'발견'은 발명과 구분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.

(2)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들

1) 영업발명

-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'발명'에 해당하지 않지만, 영업방법이 정보기술(IT)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해당하고,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경우 '발명'에 해당할 수 있다.

2) 음식

- 먹는 음식이 발명이 될 수도 있다. 짜장소스의 제조방법, 다금바리 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등 많은 음식특허가 있다.

3) 박테리아 유전자

- 특허가 될 수 있다. 자연자체의 미생물은 불가능하지만, 비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합성물로 인간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박테리아와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면 발명이 될 수 있다.